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퀵 모기지
주/택/응/자/전/문

다양한응자상품, 전화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티/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안전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김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흥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크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중
제 16 주일

2020년
7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오 10.24-43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지혜서 12,13.16-19
화답송 시편 86(85),5-6.9-10.15-16 (㉠ 5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6-27
복음환호송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오 13,24-43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7/20/20	미카 예언서 6,1-4.6-8	마태오 12,38-42
화요일 7/21/20	미카 예언서 7,14-15.18-20	마태오 12,46-50
수요일 7/22/20	아가 3,1-4	요한 20,1-2.11-18
목요일 7/23/20	예레미야서 2,1-3.7-8.12-13	마태오 13,10-17
금요일 7/24/20	예레미야서 3,14-17	마태오 13,18-23
토요일 7/25/20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서 4,7-15	마태오 20,20-28
일요일 7/26/20	열왕기 상권 3,5-6 7.7-12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8,28-30	마태오 13,44-52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최규학 (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유근성(시몬) 가족
 - 황태진(필립보) 가족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유희자(베로니카)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이상화(알비노), 정명좌(알비나) - 에디슨 구역
- 신영수(아론) 가정 - 황태진(필립보) 가족
- 채 바오로 형제님과 채 데레사 자매님의 손주 탄생 축하
 - 우드브릿지, 피스카타웨이 구역
- 문지수(스테파노) 채유진(요안나) 가정의 아기 탄생 축하
 - 최현지(안토니아)

교무금 납부 안내

황태진(7-8)	배인호(7-12)	김영필(7-8)
오현주(7-8)	김금자(3-7)	손종철(3-6)
김인자(7-12)	김진(6-7)	김삼식(7)
한철희(7-8)		합계: \$2,47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김인자(\$300)	합계: \$300
------------	-----------

주일 헌금 납부 안내

미사참여 59명	야외영성체 참여 42명	합계: \$937
----------	--------------	-----------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6월19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33,612.50 (96%)입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미사 지향 (생미사/연미사) 신청 변경 안내

- 교구청 지침에 의거하여 8월부터 장기간 미사 지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매 주 1회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 한 대에 \$10이며 금요일까지 신청해주시면 후보에 공지가 됩니다. 미사 당일 사무장에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부님께서 미사 중 신청 내용을 말씀해드립니다.
- 문의 : 사무장 (732-258-5998)

매일미사 책 신청 및 배부 안내

- 1년 구독 비용 : \$48 (신청마감 7월 26일까지)
- 구독기간 : 2020년 8월 ~ 2021년 7월
-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로 신청자를 취합하셔서 사무장에게 신청 명단 및 구독 비용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매일미사책을 배부하오니 신청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 권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신청자 및 2020-21 예비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AmazonSmile 안내

- 자세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

방역작업에 수고해 주시는 대건회와 야외 영성체 진행을 도와주시는 요셉회, 프란치스코회, 야고보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4. 야외 영성체

주일 오전 9-10시까지 있는 야외 영성체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오 복음 13,24-43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출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밭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1. “좋은 씨”(마르 13,24)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뒷담화 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 등)

2. 오늘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앙 칼럼

미사 예물과 미사 지향

미사에서 흘러나오는 효과를 자신의 지향대로 적용해 주기를 요청하며 사제에게 주는 예물을 “미사 예물”이라고 합니다. 8세기부터 서방교회에서 미사에서 누룩 없는 빵을 쓰고, 봉헌 행렬 때 빵 대신 돈을 바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봉헌된 돈은 주로 성직자의 생계 지원에 쓰여졌습니다. 이 때부터 “미사 예물” 관습이 생겼는데, 예물을 봉헌한 교우가 요청한 특정 지향에 따라 사제가 미사를 거행하는 관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미사 예물에 법적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물과 미사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예물은 쉽게 돈으로 대체되면서, 계약 성격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곧 사제에게 물질적인 예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사제에게서 미사에서 나오는 영적인 예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미사지향과 함께 예물을 봉헌 신자가 그 미사의 은총을 독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사 사체보다 그 효과에 더 관심을 갖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었고, 미사 예물만 봉헌하고 미사 참여에는 소홀하게 하는 모습도 낳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전례 개혁에서는 미사는 거행 자체가 중심이며, 영성체로 절정에 이르는 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모든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이며 모든 이의 구원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법에 따라 사제는 미사 예물을 받으며, 하루에 한 미사, 한 미사에 한 지향이 원칙이지만 예외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은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한 미사는 예물 없이 자기 교우들을 위하여 거행해야 합니다. 미사 예물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봉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결합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사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시며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내어 주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예수님께 받은 제물을 은총으로 바꾸어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렇게 미사 예물을 바치며 미사에 더욱 깊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우들은 자기가 요청한 지향에 따라 거행되는 미사에 영성체를 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미사 예물은 사고파는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미사 예물을 바쳤으니 이 미사는 내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제가 미사 중에 지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원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우들이 미사 지향을 청하면서 미사 때 이름을 말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에는 교회 전체의 미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잘못, 또는 영적인 이익보다 인간적인 만족을 앞세우려는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미사 지향으로 예물과 함께 봉헌을 했다면, 그 효과는 미사 중에 사제가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 곧 사제의 직무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 자비와 교회의 기도에 의탁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